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 '라인 프렌즈'가 떴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첫 정규 스토어 오픈
애플 캐릭터 브랜드 최초...美 진출 본격화



아시아에 이어 이제는 미국 시장이다.

링크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캐릭터가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등장했다. 라인프렌즈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1일 대형 정규 스토어를 오픈했다. 미국 최대 상권으로 세계 금융 중심이자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뉴욕 중심부에 첫 거점을 확보한 것이다. 아시아 캐릭터 브랜드로는 최초이자, 디지털 미디어로 시작한 캐릭터가 이룬 이례적인 성과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네이버와 라인이 북미 진출을 위해 꾸준히 공을 들여온 상황에서 첫 침범으로 라인의 캐릭터들이 나선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라인 프렌즈는 뉴욕점 오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초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고 나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행보와도 궤를 같이한다. 또한 라인이 뉴욕 중시에 상장한 지 1년이 된 시점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뉴욕점은 430㎡(약130평) 규모다. 하루 유동 인구가 33만 명에 달하는 1515브로드웨이에 위치해 있다. 미국 현지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프리 오픈 행사가 열린 7월 21일부터 30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픈 첫날에도 매장 안이 발 디딜 틈 없을



1일 그랜드 오픈한 라인프렌즈 뉴욕점을 현지 소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라인프렌즈가 세계 금융 중심이자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뉴욕 맨해튼에 대규모 정규 스토어를 오픈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라인프렌즈 광고(오른쪽).



사진제공 | 라인프렌즈

정도로 붐볐다.

뉴욕점은 단순한 캐릭터 상품 판매 매장이 아닌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꾸몄다. 또 현지에서만 판매하는 뉴욕 에디션 26종도 준비했다.

라인은 타임스퀘어 내 대형 LED 전광판에 스토어 오픈과 뉴욕중시 상장 1주년을 축하하는 옥외 광고를 진행, 뉴욕점을 둘러싼 타임스퀘어 지역이 라인 프렌즈 캐릭터들로 가득 차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2015년 독립 법인으로 분사한 라인프렌즈는 그동안 서울과 상하이, 베이징, 홍콩, 도쿄 등 11개국에 84개의 매장(팝업 포함)을 개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2015년 보다 2.5배 성장한 1010억원의 글로벌 브랜드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에서도 정규 스토어 오픈 전인 2014년 12월 3주간 타임스퀘어 1414 브로드웨이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 3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라인프렌즈 관계자는 "뉴욕 정규점 오픈은 영화나 TV 콘텐츠 중심의 캐릭터가 아닌 디지털

미디어에서 출발한 캐릭터가 문화 트렌드의 중심인 뉴욕에 진출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현재 라인프렌즈는 국내외에서 정보기술(IT), 유통, 패션, 금융 등 다른 산업군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5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라이센싱 엑스포 2017'에서는 해외 파트너들과 글로벌 캐릭터 사업 확대를 위한 약 1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LF 헤지스, 파리 진출

람단 투아미와 첫 협업, '폴레트' 입점



프랑스 파리 편집숍 '폴레트'에 입점한 람단 투아미와 협업 작품인 '아티스트 에디션'.

패션 브랜드 LF 헤지스가 프랑스 파리에 진출했다.

5일까지 프랑스 파리 편집숍 '폴레트'의 쇼윈도 전시를 통해 하반기 진행할 글로벌 전략 라인 '아티스트 에디션'의 첫 컬렉션을 공개한다.

'아티스트 에디션'은 세계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헤지스의 로고 및 심볼 등 아이덴티티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을 제품에 결합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첫 협업 아티스트로 프랑스 유명 아트 디렉터 람단 투아미를 선정했다.

남지현 LF 마케팅실장은 "파리 폴레트 입점 및 쇼윈도우 전시와 마레지구에 오픈 할 팝업스토어는 헤지스의 유럽 시장 성공 가능성을 시험하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브랜드 발걸음을 내딛는 데뷔 무대"라며 "향후 파리 마레 지구 헤지스 팝업스토어, 글로벌 전략 라인 '아티스트 에디션' 론칭,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로고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롯데호텔, 미얀마 양곤에 8번째 해외호텔 오픈

객실 343실...양곤 최대규모 컨벤션

롯데호텔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김정환)는 2일 8번째 해외 체인 호텔을 미얀마 양곤에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9월1일 문을 여는 '롯데호텔 양곤'은 위탁경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롯데호텔이 미국,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미얀마에 진출한 것은 시장의 풍부한 잠재력 때문이다. 미얀마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양곤은 2006년까지 미얀마의 수도였고, 현재도 각종 대사관과 대학, 기업들이 있다. 특히 2015년 미얀마 최초의 특별경제구역 특별과 경제특구가 지정되면서 더욱 해외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양곤은 대한항공 직항편이 하루 1회 운항한다.



롯데호텔 양곤

4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 롯데호텔양곤은 미얀마의 상징이자, 불교 성지인 슈에다곤 파고다의 북쪽, 양곤 최고의 유원지 인야 호수와 인접해 전망이 수려하다. 양곤 국제공항도 차로 약 20분 거리다. 지하2층, 지상15층의 객실 343개의 호텔동과 지하1층, 지상29층에 315실을 갖춘 서비스아파트먼트로 이루어졌다. 호텔은 전

객실이 인야 호수 전망이고, 337㎡ 규모의 로열 스위트룸을 포함해 10개의 객실 타입을 운영한다. 서비스아파트먼트는 최신 시설과 커뮤니티 라운지 및 어린이 놀이방 등을完비한 것은 물론 호텔의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62~339㎡ 규모의 19가지 타입 객실을 갖추고 있어 독신자부터 대가족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부대시설로는 양곤 최대 규모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리스탈 볼룸을 포함한 9개의 중소연회장과 한식당 무궁화, 중식당 도림,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라세느, 아이 풀사이드 바&BBQ, 베이커리 델리카칸스 등을 갖추고 있다. 부속 수영장은 최근 트렌드인 인피니티 풀로 조성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뉴스디자인 | 이우진 기자

KT, 전역장병 데이터 무제한 페스티벌



KT는 전역장병을 위한 'Y전역 데이터 무제한 페스티벌' (사진)을 실시한다.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기존 Y24 65.8(월6만5890원/데이터무제한), Y24 54.8(월5만4890원/6GB), Y24 49.3(월4만9390원/3GB)을 6개월간 각각 5만 1500원, 4만8750원, 4만7353원으로 할인해 제공한다. 전역 전 후 3개월 이내 장병이면 누구나 내년 1월31일까지 전국 KT매장이나 플라자, 고객센터에서 전역예정증명서나 전역증서 등으로 가입 가능하다. 요금 할인 및 데이터 혜택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제공된다. 김병근 기자

아시아나 '재규어로 공학까지 모셔요'

아시아나 항공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함께 12월31일까지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를 원복 탑승하는 우수회원(아시아나클럽 골드 등급 이상) 대상으로 '프리미엄 의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출발지(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기사 동반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차량은 재규어랜드로버의 고급형 모델 '재규어 XJ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이다. 탑승수속 48시간 전까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트에서 선착순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

롯데카드 쇼핑물, 헬스&뷰티 전문몰로 단장



롯데카드는 1일 종합온라인쇼핑몰 '올마이쇼핑몰'을 헬스&뷰티 전문몰로 새 단장(사진)했다. 주 이용 층인 30~50대 여성회원의 소비패턴과 니즈를 반영해 화장품과 건강 관련 할인 전문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꾸준히 이용이 많은 생활가전, 모바일쿠폰, 국민행복바우처, 생필품 정기배송 서비스 등은 그대로 제공한다. 박두환 롯데카드 마케팅본부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 구색을 강점으로 차별화된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경륜경정

엇갈린 강급자...자력형 '민을맨', 추입형 '글쎄'

경륜 하반기 등급조정, 그 후

자력형 강급 선수들 성적·경기력 안정적
고요한·윤현준·장인석 등 승률 50% 넘어
추입형 정운준·임병창 승률 0% 성적부진



15기 고요한

18기 윤현준

11기 장인석

"강급자 중 옥석을 가려라." 하반기 조정된 등급 적용을 받은 7일부터 23일까지 3회차 경륜 경주가 치러졌다. 등급심사결과를 통해 강급된 18명의 기량을 파악하기 위한 시선도 뜨겁다. 지난해 하반기 등급심사에서 93명의 선수가 강급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그 수가 크게 줄었다. 그래도 경륜 팬의 강급자 욕서 가리는 여전하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등급심사에서 강급된 선수들이 대체로 기량이 뛰어나 강급 등급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성적이 좋은 선수와 부진한 선수가 뚜렷이 나뉘고 있다. 3회차 결과를 토대로 강급자들에게 대한 중간점검을 해본다.

●자력형 강급자는 민을맨

강급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는 우수급에서는 고요한(승률 66%), 윤현준(승률 62%), 장인석(승률 50%), 이효(승률

50%)를, 선발급에선 구동훈(승률 100%), 김성현(승률 66%)을 꼽을 수 있다. 모두 50%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구동훈은 3연속 우수급으로 특별승급의 발판을 마련한 상태. 승률이 높은 선수들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자력형이다. 자력형 선수는 추입형과 달리 자리 선택에 이점이 있고 어느 위치든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

이 뛰어나다. 이런 것이 장점으로 작용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구동훈, 김성현처럼 자력형이 아니면서 좋은 성적을 나타낸 선수들도 있는데 이들은 강급되기 전 우수급에서 몇 차례 이변을 만든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만 하다. 강급 전 승부욕과 성적도 참고사항이다.

●추입형 강급자는 글쎄~

반면 실망감을 주는 강급자들도 있다. 최민호(승률 16%), 정운준(승률 0%), 노성현(승률 33%), 임병창(승률 0%)이다. 특선급에서 내려온 최민호의 경우 6차례의 경기 중 단 한 차례의 우승 밖에 못했다. 우수급에서 온 임병창은 세 차례의 경기에서 모두 팬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우승은 한 차례도 없다. 노성현, 정운준 역시 기복을 보이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들은 추입의준도가 강한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추입형의 경우 강급된 등급의 기존 선수와 실력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강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고전할 때가 있다. 인정받다고 해도 전법적인 한계로 우수보다 2,3착에 그칠 때가 많다. 자력승부가 어려운 추입형은 언제든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 노성현, 임병창은 선발급에서 자력형 강자로 이름을 알렸던 선수였지만, 우수급에서는 기존 선수들과의 실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마크, 추입 시도가 늘면서 선발급에서 성적에 기복을 보이고 있다.

경륜 전문 예사지 '마지막 한 바퀴'의 장학순 예사팀장은 "강급자라고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선수들과의 기량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축이 아니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하에 분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며, "특히 추입의준도가 강한 선수들은 기복이 심한 만큼 배당을 노리는 쪽에 비중을 둔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불법 사설경주장 신고 포상금 960만원 지급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6월24일 불법 사설경주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60만원을 지급했다. 불법신고센터(1899-0707)로 걸려온 이 한 통의 신고전화로 불법 사설경주장 운영자 등 일당 8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일당 중 총책 고모씨 등 7명은 가평경찰서의 조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불법 사설경주를 신고하면 결과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랑나눔 수상스포츠포교실 12일까지 실시



'2017 경정 사랑나눔 수상스포츠포교실'(사진)이 미사리 경정공원 워킹업장에서 8월12일까지 수·목요일을 제외한 매일 2회 열린다. 하남시 소재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1000여명에게 수상스포츠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교실에서는 수상스포츠포 전문강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레저카약, 래프팅보트,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빅마블, 밴드웨건 등 총 6개 수상레저 종목의 이론과 실기 강화를 오전, 오후로 나눠 각 1회 진행한다. 정정욱 기자